

# 한국인 LPGA 역대 200승 금자탑 쌓기까지

고진영, BMW 챔피언십 우승으로 200승 완성  
LPGA 한국인 최초 우승은 1988년 故구옥희  
최다승 박세리 '무려 25승'...LPGA 역대 23위

## LPGA투어 국가별 우승 순위

	우승 횟수	우승인원
① 미국	1527회	195명
② 한국	200	48
③ 스웨덴	118	12
④ 호주	85	11
⑤ 일본	51	15
⑥ 잉글랜드	36	10
⑦ 캐나다	34	10
⑧ 멕시코	29	2
⑨ 대만	23	6
⑩ 태국	18	5

**LPGA 한국인 200승 발자취**

- 1승 구옥희 1988년 스탠다드 레지스터 클래식
- 10승 김미현 1999년 스테이트팜레일 클래식
- 20승 박세리 2001년 위타빅스 워먼스 브리티시 오픈
- 50승 김주미 2006년 SBS오픈
- 100승 유소연 2012년 제이미파 토리도 클래식
- 150승 양희영 2017년 혼다 LPGA
- 200승 고진영 2021년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고진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한국인 LPGA 통산 200승을 달성했다.  
고진영은 24일 부산시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파72)에서 열린 막을 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에서 최종합계 22언더파 226타를 기록한 연장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임희정은 4타 차로 뒤진 채 4라운드를 시작한 고진영은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고진영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무려 8타나 줄이며 세계 최강자의 면모를 유감 없이 뽐냈다.  
고진영은 197, 198, 199번째 우승에 이어 한국인 선수 200번째 정상에 선 주인공이 됐다. 또한 시즌 4승을 달성한 고진영은 벨리 코르다(미국)를 밀어내고 세계랭킹 1위 자리도 탈환했다. 이번 시즌 최다승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고진영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4타 차이로 출발해서 열심히 따라가면 2등 정도

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쳤던 것 같다"며 "프로 데뷔이후 첫번째 연장전이어서 설레기도 했는데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고진영은 또 "임희정 선수가 LPGA에 진출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조금 미안한 감도 있다"면서 "경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200승 영광을 안게 돼 신기한 우승을 거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 구옥희가 1988년 스탠다드 레지스터에서 LPGA 투어 최초 우승을 시작으로 총 49명의 한국 선수가 200승(메이저대회 34승)을 합작했다.  
한국 선수 중 최다승 선수는 박세리다. 박세리는 무려 25승을 올려 LPGA역대 23위에 올라 있다. 박세리는 한국 골퍼가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고, 선구자 역할을 한 박인비의 뒤를 이어 박인비, 고진영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탄생했다.  
박인비는 21승으로 한국인 역대 2위로 박세리를 맹추격 중이다. 김세영은 12승, 고진영은 11승, 신지에는 11승을 올려 뒤를 이었다. 한국 선수 한 시즌 최다승 선수도 박인비다. 박인비는 2013년에만 총 6승을 수확하며 기염을 토했다.  
한국 선수가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한 시즌은 2015, 2017, 2019년으로 각각 15승씩을 기록했다.  
메이저대회 첫 한국인 챔피언 역시 박세리다. 박세리는 1998년 맥도날드 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의 첫 메이저 우승을 일궈냈다.  
김미현은 1999년 스테이트 팜 레일 클래식에서 한국 선수 통산 10승을 올렸고, 김주미는 2006년 'SBS 오픈 옛 터틀 베이'에서 한국선수 통산 50승을 기록했다. 유소연은 2012년 제이미 파 톨레도 클래식에서 통산 100승, 양희영은 2017년 혼다 LPGA 타이틀랜드에서 통산 150승을 달성한 바 있다. 시즌 4승을 기록해 개인 타이 기록을 작성한 고진영은 이제 신기록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뉴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총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자치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